

‘수학, 함께 나눴시다’

내일 학생수학동아리 학술제... 동아리 65팀 1년간 활동 결과 발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6일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2024 전북 학생수학동아리학술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고, 학생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14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학술제에 65팀이 참여한다. 이날 학술제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

으로 전주화정초등학교 이재욱·이수진 교사가 ‘수와 연산’ 보드게임을 통한 수학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는 서울대학교 최영기 명예교수가 ‘수학의 삶’을 주제로 수학하는 방법 등에 대해 강의를 펼친다. 이와 함께 △남관초 수학교사 △전주기전중 수학교사 △전주 솔내고 데

이터수사대 △순창고 수학교사 △성일고 수학교사 등에서 1년간 활동하며 탐구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생수학동아리 지원을 통해 수학적 사고를 넓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3일 5층 회의실에서 (사)신지식장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내 학생 교육적 기회 제공 계기

전북교육청-신지식장학회 협약
인재 발굴·장학생 선발 협력
신지식장학회, 장학금도 기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13일 5층 회의실에서 (사)신지식장학회(이사장 조정남)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거석 교육감과 조정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 2001년 도내 언론인과 법조계·학계·기업·문화 인사들이 참여해 설립한 (사)신지식장학회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업에 임하는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

는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창의 인재 발굴과 및 장학사업을 위한 장학생 선발 △글로벌 교육문화 교류 지원 등에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사)신지식장학회는 장학금 2,000만 원을 기탁했다. 조정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의 교육적 발전과 함께 지역 산업의 육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협약이 전북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적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지역 교육의 질을 높이고, 글로벌 인재 양성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 에너지 경제 활성화 ‘맞손’

전주대 미네르바학부, 수소에너지고와 협약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 미네르바학부 및 LIFE사업단은 수소에너지고등학교(교장 송현진)와 전북 수소에너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지난 13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미네르바학부 김병오 학부장, 송해근 교수를 비롯해 수소에너지고 송현진 교장, 조하용 교감 등 양 기관 8명이 참석하여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체결에서는 한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수소에너지고 졸업생들이 전주대학교 미네르바학부를 비롯한 관련 학과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을 넓히는 취지로 △대량한 장학금 해택 △사전 학습 경험 인정(RPL) △전주대 내 수소·2차전지·반도체·기계·전기



등 관련 학과와의 추가 협약 등을 통해, 졸업생들의 전문성 강화 및 산업계 진출을 지원한다. 특히 수소에너지고는 자동차 및 반도체 기반의 수소연료전지와 이차전지 산업에 특화된 기초 전공 교육 과정을 운영하며 에너지 생산 설비의 유지보수 및 제조 공정 분야에서 필요한 고급 기술 인력을 배출할 것으로 기대돼, 전주대와의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경영대학, 회계법인 아성과 협약

전주대학교 경영대학은 지난 13일 회계법인 아성(회장 양동구, 전 광주지방국세청장)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본교 학생들에게 폭넓은 회계 실무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해 실무형 전공지식 및 성숙한 남세문화를 함양시키고, 창의적 실용 인재 양성을 목표로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양동구 회장과 김효진 경영대학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산학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경영대학 학생들의 회계전문가 양성을 위한 상호 협력 △지역역인 중심대학지원체계 맞춤형 교육과정 공동 개발 및 운



영 △경영대학 및 카를링사업단(단장, 김효진 교수) 참여 학생 대상 전문가 특강 △참여 학생의 현장실습 프로그램 지원 등이 있다. 특히 이날 협약식에는 2024년 세무사 최종합격자인 경영학과 김수연(16학번), 회계세무학과 반나영(15학번) 학생이 함께 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친환경자동차학과
홍석과 업무협약 체결

전주대학교 친환경자동차학과는 지난 13일 (주)홍석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친환경자동차학과는 성인 재직자들이 친환경미래모빌리티 분야의 영상감시장치 전반에 걸친 4차 산업 전문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산업체 연계 현장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강성수 학과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유협업형 지역고등평생교육생태계를 구축하고 현장학습 기관 인재의 교육·취업 지원 및 상호협력 연계 과정이 탄생할 것”이라며 “전북지역 성인 재직자들의 성공적인 재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진호 대표이사는 “당사의 20여 년 간의 축적된 영상제어 기술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활용해 재직자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산업계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의미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특히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와 영상감시장치 분야의 융합을 통해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적인 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도 적극 기여하며 성인 학습자의 교육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멘탈헬스코리아상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는 지난 13일 열린 청년 정신건강 서포터즈 ‘영마인드 링크’ 해단식에서 멘탈헬스코리아 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영마인드 링크’는 청년들의 정신건강 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서포터즈로, 전주비전대학교는 ‘베이커+업’이라는 간호학부 학생들로 구성된 팀으로 참가해 ‘공동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한 청년 중독 가족 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서포터즈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지역사회에서 청년들이 직면한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 51개의 팀이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이 중 ‘베이커+업’ 팀은 △공동의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캠페인 △카드뉴스 △포스터 제작 △공동의존을 겪는 청년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연계 △청년 자조모임 진행 등 외부 지지체계형성을 위한 활동을 펼쳤다. 팀의 리더인 윤희정 학생은 “중독과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들과 그들의 가족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을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멘토 역할을 해준 간호학부 조현미 교수님, 전주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조영하 팀장님 등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수능 종합상황실을 찾은 서거석 교육감 2025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이 치러진 14일, 서거석 교육감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설치된 수능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환경 유해인자에 대한 ‘알 권리’ 중요”

전북환경보건센터, 환경보건 인식 향상 공동포럼
권역별로 진행한 인식도 조사방법·결과 공유

전북환경보건센터(센터장 손정우)는 지난 13일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도민의 환경보건 인식 향상을 위한 공동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전북특별자치도환경보건센터와 경상남도환경보건센터, 충청북도환경보건센터가 공동 주관했다. 손정우 센터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날 포럼에서는 이현옥 전북특별자치도 생활환경과장의 환영사와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강민정 사무관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어 경남센터 김아라 사무국장, 전북센터 박서현 사무국장, 충북센터 문선인 사무국장이 각 권역에서 진행해 온 환경보건 인식도 조사 방법과 결과를 발표했다. 2부에서는 손정우 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박진영 박사(전북대 과학문명연구소)와 이정현 대표(전북환경운동연합) 등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다양한 환경유해인자로부터 개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환경 유해인자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환경보건 위생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서현 사무국장은 “환경 유해인자에 대한 대중의 ‘알 권리’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으며, 대중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이를 통해 정확한 이해를 돕는 것이 필요하다”며 “잘못된 정보가 공포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정보의 올바른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지역 고령자 주거복지 대안 마련

전북대 주거환경학과, 전문가 토론회 개최

전북대학교 주거환경학과(학과장 최병숙)는 지난 13일 LH전북지역본부 소통공간에서 열린 ‘지역 거점형 고령자 주거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 참가,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고령친화적 주거생태계 조성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전북대 주거환경학과와 LH전북지역본부, 토지주택연구원, 한국주거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토론회는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선 전북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고령자들이 안전하고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추진됐다. 이날 기조강연에 나선 윤영호 주거연구원은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한 한국형 고령자 주거생태계 조성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필

수적임을 강조했다. 이어진 세부 발제에서는 고령자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농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생활환경 조성방안, 노인주택 정책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전북대 주거환경학과 장미선 교수는 ‘고령자복지주택의 실내환경 평가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노인 주택의 쾌적성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실내환경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장 교수는 “고령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해선 고령자복지주택의 실내 환경을 평가하고, 안전성과 쾌적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학계와 관련 연구기관, 지자체가 노인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한 의지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최웅준 교수
한국방송학회장 취임

“사회적 책임 다하는 지식의 원천 돼야”

전북대학교 최웅준 교수(사회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사원)가 제37대 한국방송학회장에 취임했다고 14일 전했다. 임기는 1년이다. 지난 9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최 선임 학회장은 생생형 AI 등 급속한 기술 발전과 다채로운 미디어 환경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국방송학회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취임 일성을 밝혔다. 이어 “이번 변화의 시기일수록 지식 공동체인 학회는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며 “지식생산과 교류라는 본연의 기능을 통해 우리 방송학이 단순한 연구 대상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지식의 원천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학회장은 중앙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 마켓 대학교에서 방송학 석사, 남미시피 대학교에서 언론학 방송학 박사를 취득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책임연구원,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방송균형발전전대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장은성 기자